Symphony No. 40 in G minor, K. 550

- □□

정보

Wolfgang Amadeus Mozart: Symphony No. 40 in G minor, K. 550

개요
곡명: Symphony No. 40 in G minor, K. 550
작곡가: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작곡 시기: 1788년 7월 25일 자작 작품목록 기입
초연: 날짜와 장소 미상
작품 유형: 관현악을 위한 네 악장 교향곡
판본: 클라리넷 없는 제 1판본, 클라리넷을 넣은 제 2판본
초판: 1794년, Offenbach의 Johann André, 제 1판본 파트보

IMSLP: Symphony No. 40 in G minor, K. 550

Wikipedia: Symphony No. 40 (Mozart)

Wolfgang Amadeus Mozart의 교향곡 40번 사단조는 1788년에 쓴 관현악곡이다 . 빠른 첫 악장에 이어 느린 악장, 미뉴에트와 트리오, 빠른 피날레를 연주한다. 클라리넷 없이 쓴 판본과 두 대의 클라리넷을 넣어 목관 성부를 고친 판본이 모두 전하며, 두 판본은 같은 네 악장으로 이루어진다 .

작곡과 초기 연주

Mozart는 1788년 여름에 마지막 세 교향곡을 썼다. 자작 작품목록에 적은 날짜는 39번이 6월 26일, 40번이 7월 25일, 41번이 8월 10일이다. 지금은 영국도서관이 소장한 이 목록에 40번의 첫 편성도 기록되어 있다. 플루트, 오보에, 바순, 호른과 현악을 적었으며, 클라리넷은 이후 수정에서 들어왔다.

생전 연주를 전하는 자료로는 프라하의 음악가 Johann Wenzel이 출판업자 Ambrosius Kühnel에게 보낸 1802년 편지가 있다. Milada Jonášová가 소개한 이 서신에서 Wenzel은 Mozart에게 직접 들었다며, 빈의 음악 후원자 Gottfried van Swieten의 집에서 이 교향곡을 연주한 일을 전한다. 공연 당일의 기록은 아니지만

, 작품이 작곡가 생전에 실제 연주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

출판 정보와 자료

첫 관현악 파트보는 Mozart가 세상을 떠난 뒤인 1794년에 André가 출판했다 . 이 인쇄본은 클라리넷 없는 판본이며 , 클라리넷을 넣은 판본은 1805년 André의 두 번째 판에 실렸다 . 최초의 총보 인쇄는 1807년부터 1810년경 사이 런던 Cianchettini & Sperati의 교향곡 모음집에 포함되었다 .

빈 Gesellschaft der Musikfreunde에는 첫 판본의 자필 총보와 , 새 오보에 ·클라리넷 성부를 적은 별도 목관 악보가 함께 남아 있다 . Mozart는 교향곡을 처음부터 다시 베껴 쓰지 않고 이 목관 악보로 개정을 마련했다 . 클라리넷을 넣은 판본은 기존 오보에 선율의 배분도 바뀌므로 , 클라리넷 두 대만 기존 편성에 덧붙인 것으로 이해하면 실제 성부 관계를 놓치게 된다 .

H. C. Robbins Landon이 편집한 신모차르트전집 (NMA)은 두 판본을 각각 전곡으로 싣는다 . 이를 바탕으로 한 Bärenreiter의 실용판은 클라리넷 없는 `BA 4710` , 클라리넷을 넣은 `BA 4724` 다 . Henrik Wiese가 편집한 Breitkopf `PB 5542` 도 두 판본을 함께 제공한다 . Wiese는 클라리넷을 더한 뒤 느린 악장을 다시 원래 편성으로 수정한 단계를 구분한다 . 두 판본은 모두 Mozart의 작업 결과이며 오늘날 연주할 수 있는 선택지다 .

느린 악장의 자필 자료에는 각각 네 마디를 바꾸는 대체 구절도 있다 . 초기 필사본과 André 초판은 이를 원래 구절 뒤에 추가해 악장을 늘렸다 . NMA 계열 판본은 추가분이 아닌 대체안으로 정리한다 . 이 차이는 클라리넷의 유무와 별도로 악보 본문에 영향을 준다 .

소요 시간

전곡은 대개 약 25–35분이다 . 특히 2·4악장에서 제시부뿐 아니라 발전부와 재현부를 포함한 후반도 반복하는지가 큰 차이를 만든다 . 모든 반복을 실행한 Charles Mackerras와 Scottish Chamber Orchestra의 2007년 녹음은 약 34분이다 . 이 녹음을 기준으로 악장별 시간을 반올림하면 다음과 같다 .

악장	소요 시간
I. Molto Allegro	약 7분
II. Andante	약 13분
III. Menuetto. Allegretto – Trio	약 4분
IV. Allegro assai	약 9분

편성

악기군	제 1판본	제 2판본
목관	Flauto; Oboe I, II; Fagotto I, II	Flauto; Oboe I, II; Clarinetto I, II in Si♭; Fagotto I, II
금관	Corno I in Si♭ alto; Corno II in Sol	Corno I in Si♭ alto; Corno II in Sol

악기군	제 1판본	제 2판본
현악	Violino I, II; Viola; Violoncello e Basso	Violino I, II; Violoncello e Basso

트럼펫과 팀파니는 사용하지 않는다. 두 판본의 차이는 주로 목관 성부에 있으며, 사장조 트리오는 클라리넷을 넣은 판본에서도 원래 편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클라리넷은 교향곡 전체의 모든 대목에 같은 방식으로 더해지는 악기가 아니다.

네 악장의 진행

I. Molto Allegro

비올라가 여린 8분음표 반주를 시작하고, 바이올린이 약박에서 첫 선율을 내놓는다. 선율은 짧은 음형을 거듭하면서 길게 이어지며, 같은 주제가 다시 나올 때에는 오보에와 바순의 화음이 이를 받친다. 처음에 분리된 음을 연주하던 첼로와 더블베이스도 지속음으로 바뀐다. 주제를 되풀이하는 동안 반주와 음색을 조금씩 바꾸는 시작이다.

강한 합주를 거친 뒤 짧은 쉼이 나오고, 내림나장조의 두 번째 주제가 나타난다. 반음계적으로 내려가는 이 선율은 현악과 목관 사이를 오간다. 두 주제군을 담은 제시부를 반복한 뒤에는 첫 주제의 짧은 음형을 중심으로 발전부가 진행된다. 시작부터 올림바단조로 옮겨 가며 조성의 거리를 넓히고, 음형을 여러 성부에 나누어 주면서 더 작은 단위로 쪼갠다. 재현부에서는 두 주제가 사단조로 돌아오므로, 앞서 장조로 나타났던 두 번째 선율도 달라진 조성에서 들린다.

II. Andante

느린 악장은 내림마장조로 시작한다. 비올라가 같은 음을 되풀이하는 선율을 시작하면 제 2바이올린, 제 1바이올린이 차례로 들어와 더 높은 음역에서 모방한다. 현악 성부들이 겹쳐진 뒤 목관의 음색이 더해진다. 선율 사이에 나타나는 짧은 두 음의 32분음표 음형도 특징적이다. 여러 악기가 이 작은 음형을 주고받으면서 긴 선율 사이에 빠른 움직임을 더한다.

두 주제군을 제시하고 반복한 뒤, 발전부에서는 짧은 음형을 활용해 단조 영역으로 옮겨 간다. 반음계적인 화성과 악기별 응답을 거쳐 처음 주제가 돌아온다. 이 악장에는 발전부와 재현부를 아울러 반복하는 지시도 있다. 후반 반복을 실행하면 중앙의 변화와 주제의 귀환을 다시 한 번 거치게 된다.

III. Menuetto. Allegretto – Trio

미뉴에트는 사단조의 강한 악센트로 시작한다. 반주는 3박자를 유지하지만 선율의 묶음은 2박자처럼 들리는 헤미올라를 만든다. 박자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선율과 반주가 음들을 묶는 방식이 어긋나는 것이다. 진행하면서 성부들이 서로 모방하는 대위적 짜임도 두드러진다.

중간의 트리오는 사장조로 옮겨 간다. 현악과 관악기가 부드러운 선율을 나누고, 호른과 목관의 음색이 드러난다. 트리오 뒤에는 첫 미뉴에트로 돌아가 악장을 마친다. 사단조 주부와 사장조 중간부의 대비가 이 악장의 큰 구획을 이룬다.

IV. Allegro assai

현악이 화음 구성음을 따라 위로 도약하는 주제를 여리게 연주하고, 관현악 전체가 큰 소리로 응답한다. 강약과 편성을 빠르게 바꾸면서도 악구는 규칙적으로 이어진다. 바이올린의 빠른 음형 뒤에 짧은 쉼이 놓이고, 더 차분하게 노래하는 두 번째 주제가 나온다.

제시부를 반복한 뒤 발전부 첫머리에서는 첫 주제가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강한 옥타브 진행과 쉼이 번갈아 나오며, 교향곡의 으뜸음인 솔을 제외한 열한 종류의 반음계 음이 사용된다. 그 뒤에는 첫 주제의
머리를 여러 성부가 모방하는 빠른 푸가토가 이어진다. 짧은 침묵을 거쳐 재현부에 들어서면 두 주제가 다시 나타나고, 두 번째 주제도 사단조로 바뀐다. 느린 악장과 마찬가지로 후반 전체의 반복 지시가 있으며, 종결까지 사단조를 유지한다.

악구와 반복을 다룬 연주 자료

지휘자 Gianmaria Griglio는 첫 악장의 공개 지휘 해설에서 첫 마디의 비올라 반주와 뒤따르는 바이올린
선율을 구분해 설명한다. 먼저 비올라의 움직임을 받쳐 주고, 두 번째 박부터는 바이올린의 악구를 이끌며 정형적인 두 박의 동작에서 벗어나자고 제안한다. 반주가 박을 유지하는 동안 지휘 동작은 선율의 진행을 보여 주는 방법이다. 발전부에서는 114마디의 갑작스러운 큰 소리가 나올 때까지 동작을 작게 유지해, 그 순간의 대비를 보존한다고 설명한다.

Landon의 판본 서문도 악구 처리와 관계된다. 그는 제시부와 재현부의 평행 구절에 남아 있는 작은 프레이징 차이를 자필보대로 보존했다. 같은 주제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모든 슬러를 통일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악보에서 비슷한 구절들의 표기가 달라 보이는 경우, 이러한 편집 원칙이 그 배경에 있다.

느린 악장의 기본 박을 어떻게 보여 줄지도 Griglio가 다룬 문제다. 그는 한 마디를 여섯 개의 작은 박으로 계속 지휘하면 악구가 처지거나 점차 느려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큰 흐름은 두 박으로 이끌고, 합주를 명확하게 맞춰야 하는 곳에서 작은 박을 함께 보여 주자고 제안한다. 여섯 개의 8분음표가 이루는 내부 움직임과 긴 선율의 흐름을 함께 살리는 방법이다.

Mackerras의 2007년 녹음에서는 네 악장의 모든 반복을 실행했다. MusicWeb International의 Tony Haywood는 빠른 기본 박과 팽팽한 리듬, 선명한 관현악 세부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 반복 선택도 명시했다. 빠른 템포를 택하면서 반복 구간은 충분히 연주하는 방식으로, 느린 악장과 피날레가 전곡에서 차지하는
시간도 커진다.

Nikolaus Harnoncourt는 2014년 발매한 마지막 세 교향곡 녹음을 instrumentales Oratorium, 즉 기악 오라토리오로 제시했다. 세 교향곡을 하나의 큰 음악적 흐름으로 보는 그의 해석이다. Concentus Musicus Wien과의 연주에서는 39번 끝에서 40번 첫머리로 곧바로 넘어갔으며 , 40번 피날레 발전부의 끊어진 악구 사이 휴지도 길게 늘렸다. BBC Music Magazine의 Misha Donat는 이 휴지 연장을 악보를 고쳐 쓰는 데 가깝다고 비판했다. 작품을 묶는 방식뿐 아니라 한 악장 내부의 침묵을 얼마나 길게 두느냐에도 해석의 차이가 드러난다.

주요 레코딩

Bruno Walter · Berlin State Orchestra, 1929년, Columbia DX 31/3. 베를린
Beethovensaal에서 녹음한 Walter의 첫 Mozart 교향곡 음반이다. Pristine PASC564 로
복각되었다 . MusicWeb International의 Michael Greenhalgh는 작은 현악군의 팽팽한 합주와 첫

악장의 내향적인 표현을 주목했다.
Charles Mackerras · Scottish Chamber Orchestra, 2007년 녹음, 2008년 발매, Linn CKD 308. 클라리넷을 넣은 판본과 모든 반복을 택했다. Haywood는 현대악기 연주에 역사적 연주
관행을 반영한 세트로 평가하고, 40번의 높은 집중력과 추진력을 호평했다.
Nikolaus Harnoncourt · Concentus Musicus Wien, 2013년 녹음, 2014년 발매, Sony Classical 88843026352. 시대악기로 마지막 세 교향곡을 함께 녹음했다. 39번에서 40번으로의
연결과 피날레 휴지 처리를 비롯해, 세 작품을 하나의 기악 오라토리오로 보는 후기 해석이 구현된 음반이다.

주요 자료

Internationale Stiftung Mozarteum, Köchel-Verzeichnis의 KV 550 제 1판본 과 제 2판본: 연대,
정확한 편성, 악장 표제와 초기 인쇄.
H. C. Robbins Landon 편, Bärenreiter TP 40 서문: 자작 작품목록, 두 자필 자료, 출판, 느린 악장
대체안과 프레이징 편집 원칙.
Henrik Wiese 편, Breitkopf PB 5542: 두 판본과 세 단계 수정에 관한 편집 관점.
Milada Jonášová, 〈A Performance of the G Minor Symphony K. 550 at Baron van Swieten’s Rooms in Mozart’s Presence〉: Wenzel의 서신이 전하는 생전 연주.
Michael Steinberg, San Francisco Symphony, Mozart: Symphony No. 40: 첫 악장의 악기
배치와 피날레의 악구 ·리듬.
Bruno Guilois, Philharmonie de Paris, Symphonie n° 40, Marianne Williams Tobias, Indianapolis Symphony Orchestra, Symphony No. 40: 느린 악장의 성부 진입, 짧은 음형과
피날레 진행.
Calvin Dotsey, Houston Symphony, Wolfgang’s Dark Side, John Henken, LA Phil, Symphony No. 40: 주제 ·조성 ·반복과 미뉴에트.
Gianmaria Griglio, Conducting Mozart: Symphony n. 40 K550 – 1st movement, Movements 2–3: 첫머리 악구, 발전부의 강약 대비와 느린 악장의 큰 박 ·세분 박을 다루는 지휘 동작.
Tony Haywood, MusicWeb International, Mackerras / Mozart Symphonies 38–41, Linn CKD 308: 반복 선택, 독립 비평과 악장별 시간.
Harnoncourt의 공식 음반 소개, Nikolaus Harnoncourt Zentrum 녹음 기록, Misha Donat, BBC Music Magazine, Mozart: Symphonies Nos 39–41: 통합 해석, 녹음 식별과 휴지 연장에 관한 비평.
Michael Greenhalgh, MusicWeb International, Walter의 전쟁 전 Mozart 녹음, Pristine PASC564: 1929년 녹음과 복각, 독립 평가.